

에서 折斷되어 있는데 그 斷面의 金屬色調는 鉛色 비슷한 灰白色이다. 表面은 滑澤있는 黑漆色이며 근대 근대 석아서 패어진 部分에는 靑色の 녹이 슬고 있다.

出土地는 大邱에서 東北方에 該當하는 西北區 西邊洞이라 하며 八公山 桐華寺로 가는 길에 산기슭에 若干 沙汰가 난 곳에서 주었다고 한다. 拾得者는 西北區 山格洞一區 一〇〇八번의 이응수氏. 發見日字는 지난 二月十七日로 報告되어 있는데 筆者는 아직 現場을 踏查 못하고 있다. 大邱居住 同人의 調査를 바라고 있으며 끝으로 이 靑銅斧의 實測圖와 寫眞原版을 惠與해 주시고 여러가지 敎示해 주신 慶州博物館 朴日薰館長의 厚意에 感謝드리는 바이다.

延嘉七年銘 金銅如來像의 出土地

朴 敬 源

이 佛像이 世上에 紹介된 以後 그 銘文의 研究나 出土地點에 對한 疑問의 解明에는 別다른 進展도 보지 못한채 어언간 半年이 지났고 그 發見된 날로 부터는 벌써 一年이 다 된 셈이다.

그 出土地에 對한 疑問이란 말하자면 이와 같은 樣式의 佛像이 어떻게 해서 이 地點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問題라 하겠다.

이 佛像이 地中에서 發見된 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나 出土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綠銹가 全然 없을뿐더러 光背나 臺座等의 모수리가 相當히 磨耗된 것으로 봐서 이곳에 埋藏되기 전에 벌써 相當한 期間 寺院이나 或은 個人의 손에 傳世된 遺物임을 짐작케 하였던 것이다.

그 위에 이 佛像이 埋藏된 곳이 佛像과는 何等의 因緣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場所이고 보면 그 疑問은 더욱 深刻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佛像이 發見된 經緯는 昨年十二月初의 關係 新聞記事와 本誌 第五卷 第一號(一九六四・一)에 紹介되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할 必要가 없

졌으나 이와같이 貴重한 出土品이 中途에서 亡失 또는 暗藏되지 않고 所定의 節次를 밝아서 가장 順調롭게 當局에 收拾된 것도 前例가 드문 일인상 싶으나.

姜甲順 母子가 처음 그것을 發見한 날은 많은 洞民이 道路工事に 動員되었기 때문에 그 所聞이 넓게 퍼지게 되었고 그 所聞을 듣고 即時로 現地에 가서 發見者로 하여금 所定의 申告를 시킨 大義支署의 李炳正巡警 鄭時興宜寧警察署長의 適切한 處理等 지나고 보면 모두가 多幸한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筆者는 十一月二十六日 現地 關係者들의 案内로 現地를 調査하였는데 그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와같은 遺物이 出土한 곳이라면 그럴듯한 重要な 遺蹟이나 資料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적지 않은 期待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結果는 前述한 疑問에 對한 解明의 端緒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現地 宜寧郡 大義面 下村里는 郡西 三面의 境界를 이룬 嶺山(八九七m)의 西面한 溪谷을 西流하여 陝川郡 三嘉의 南江 支流에 들어가는 薪田川을 끼고 있는 百戶가량의 部落이다.

이 溪川의 兩岸에는 西쪽으로 넓이 三〇〇m가량의 들이 晉州——陝川街道까지 展開되었고 東으로 시내를 따라 嶺山麓의 薪田里 內洞까지 이르러는 小路의 西쪽은 좁은 耕作地帶인데 三嘉서 下村里까지 五km 下村里서 內洞까지 四km, 總延長 九km나 되는 길은 溪谷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佛像이 出土한 地點은 이 溪谷을 貫通한 面道の 南쪽으로 넓이 一〇m 정도의 밭이 있고 그 다음은 거무스레한 「돌밭」인데 이 돌밭은 略圖에 보는 바와 같이 下村里의 건너편에 특 튀어나온 標高 二〇〇m 가량의 突山의 北斜面에 沙汰가 나서 굴러 내려 온 것이다. 이 山石들은 큰 것이라 하여 「벼개」程度이고 比較的 平坦한 조각이 많은데 이 沙汰는 아무리 오래 잡아도 百年以上 된것은 아니리라 생각되었으며 이 「돌밭」에는 到處에 절레명풀이 없어서 우리들이 시골 어느 洞里의 洞口에서

